

‘장애인 다큐멘터리’의 다층적 서사구조와 문화적 함축 의미: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의 유럽과 일본 버전에 대한 기호학적 비교분석*

한지원**, 백선기***

【 차례 】

-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I. 기존문헌 고찰 및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에 대한 다층적 서사구조를 밝혀내고 그러한 서사에서 내재된 문화적 함축 의미를 숙고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서사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면서 구성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무엇이 주목되고 중점적으로 주제화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러한 시각과 중심 주제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면서 재현되는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같은 장애인 주제를 다루었으나 유럽의 버전과 일본의 버전이 있는 <달팽이의 별>을 선정하였고, 다양한 기호학적 방법들, 즉, 서사구조 분석방법, 계열체 분석방법, 행위주 분석방법 등을

* 본 연구는 백선기교수의 <다큐멘터리와 재현> 연구 프로젝트들 중 하나이며, 한지원의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활용되었고, 백선기교수의 지도하에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 4U 미디어 본부장,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bombaby@hanmail.net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신저자, baek99@skku.edu

적용하였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감성과 정서적 시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유럽과 일본의 버전은 각기 다른 서사구조와 계열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장애를 인식하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양에서 장애인은 상호의존적이고 주변에 민감한 주체로 인식되는데 비해, 유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자아 중심의 독자성을 지닌 개별적인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념적으로 보면 동양에서는 장애를 동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양에서는 동정과 배려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열쇠어 : 장애인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기호학 분석방법, 다층적 서사구조, 문화적 함의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송환> 등 몇몇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2008년 <위낭소리>, 2009년 <아이언 크로우즈>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1년 <달팽이의 별>이 경쟁부문 대상을 받으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국제영화제에서 관심을 끈 대부분의 작품이 휴먼 다큐멘터리란 점이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는 2000년대 이후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소소하고 개인적이며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런 휴먼다큐멘터리가 해외 시장에서 소구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권진희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비교하면 사생활 노출에 관대한 점과 출연자와 제작진 사이의 긴밀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 점 때문에, 한국 다큐멘터리가 외국인들에게 신선하면서 소구력 있다.’고 하였다.¹⁾

1) 권진희,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국제 공동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5쪽.

그러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해외 진출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글로벌 시각에 입각한 이야기 전개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전개의 템포, 재현, 내레이션 적절성, 전문가 인터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이야기 전개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승준 감독의 <달팽이의 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달팽이의 별>은 애초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두 명의 제작자들과 합류하여 다큐멘터리 피칭, 마켓, 펀드에 관한 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다. 소재는 지리적 공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점에서 해외진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010년 3월 <달팽이의 별>의 NHK 버전이 제작되었고, 2010년 겨울 암스테르담 버전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내용의 다른 버전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현되며, 어떻게 상이한 의미를 표출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기존문헌 고찰 및 이론적 논의

1. 다큐멘터리의 의미구성과 표현양식

다큐멘터리는 현실에 대한 단순한 모사가 아니어서 다소 다르게 재현되는 과정에서 맥락과 국면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게 된다. 홀(Hall)은 “이데올로기란 재현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²⁾이라 하며, “미디어의 현실 재구성은 사실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2) Hall, Stuart.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1982, pp.111-141.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된 결과”³⁾라고 하였다.

그런데 서사구조를 가진 다큐멘터리 텍스트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영상텍스트와 언어텍스트로 나누어진다. 다큐멘터리 텍스트는 영상기호의 도상적 특수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지만, 이와 더불어 언어텍스트가 개입된다. 때문에 다큐멘터리 텍스트의 의미 생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상표현’과 ‘언어표현’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언어표현은 내레이션이나 인터뷰 등의 언어요소를 의미하며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표현은 카메라의 앵글, 샷의 길이, 샷과 샷의 결합 방식 등 카메라의 움직임과 편집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영상표현은 보다 직접적이고 감성적이며 자극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⁴⁾

〈표1〉 다큐멘터리의 의미구성 요소⁵⁾

	영상 표현	언어 표현
구성요소	카메라 앵글, 샷의 길이, 샷과 샷의 결합방식	내레이션 인터뷰 현장음
	영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컴퓨터그래픽, 음악과 효과, 조명 등	
기능 효과	현실의 재현 감성의 전달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논리적인 지시 기능 감성의 현저성 극대화 의미의 강조

3) 남인영,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배급과 해외 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 『영상산업정책연구』 09-5, 영화진흥위원회, 2010, 7쪽.
 4) 이상요, 「한국 TV 다큐멘터리 세계화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6쪽.
 5) 같은 논문, 26쪽.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표현요소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 그런데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성격과 메시지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숏의 길이와 앵글, 숏의 결합에 따라 특정의 서사구조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 현장의 음향 요소와 언어표현이 결합하면서 특정 현실을 독특하게 재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바르트(Barthe)는 “텍스트의 의미작용은 메시지의 대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발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⁶⁾ 이러한 의미 구성을 토대로 니콜라스(Nicolas)는 다큐멘터리의 서사 양식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철학과 다큐멘터리 대상을 대하는 태도, 주제를 구축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⁷⁾

〈표 2〉 다큐멘터리의 서사 양식⁸⁾

설명적 양식 (expository mode)	현실을 직접적으로 설명. 교훈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논리성 강조.
시적 양식 (poetic mode)	현실 이미지를 재조명. 역사적 현상을 추상적이고 감상적 형태로 변화시킴.
관찰자적 양식 (observational mode)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대상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방식. 해설 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기록.
참여적 양식 (participatory mode)	제작자와 촬영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 보다 직접적인 개입 상황에서 대상에 대해 주목함
성찰적 양식 (Reflexive mode)	다큐멘터리 제작 관행을 따르면서 현실에 대한 재현의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드러냄
수행적 양식 (Performative mode)	다큐멘터리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

6) 박영원, 「롤랑 바르트의 이론과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광고의 의미작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3, 한국콘텐츠학회, 2008, 99쪽.

7) 이종수,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 전략: ‘아마존의 눈물(MBC)’과 ‘아마존(BBC2)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54:3, 한국언론학회, 2010, 379-380쪽.

8) 이종수, 앞의 논문, 379쪽.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를 살펴보면, 사회적 메시지가 강했던 2000년대 이전의 다큐멘터리는 설명적 양식과 관찰자적 양식이 많이 사용된 데 비해, 2000년대 이후는 참여적, 수행적 양식이 늘어나고 있다.⁹⁾

2.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장애인 연구

인류 역사상 장애인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존재했다. 국제사회에서 집계한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10%.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뿌리 깊게 전해왔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근간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장애의 일반적인 정의는 ‘일반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상정한다. 장애인의 이러한 상태가 사회에서 거부, 차별, 편견의 원인이 된다.¹⁰⁾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20세기 들어와 본격화 되었다.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법률과 정책은 물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인권, 존엄, 평등의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거부, 비호의성 등은 강하게 남아있어,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맥락에서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¹¹⁾

이러한 장애인 시각의 변화는 유럽과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장애인을 개인적인 비극이나 의료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사회적 변화

9) 서덕진, 「시적 다큐멘터리 영화의 몽타주해체와 분석에 관한 연구: 요리스 이벤스의 <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0) 권명옥, 「장애인권 발달사 일 고찰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3. 한국특수교육학회, 2000, 118쪽.

11) 오세철, 「동구제국의 민족주의, 인텔리겐차, 그리고 민족 문화」, 『현상과 인식』 11: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7, 9-26쪽; 권명옥, 앞의 책.

를 이끌었는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권명옥은 재활 기관이나 격리 시설이 아닌 가능하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는 운동이 퍼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통합의 개념이 강조되고, 장애인에 대한 존중으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²⁾

이는 선천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부족과 인격체의 사회적 본질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히깅스(Higgins)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벽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현재의 사회제도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화된다고 한다.¹³⁾ 그의 주장이 바로 ‘인간 다양성 모델(Human variation model)’이다.

〈표 3〉 장애인 개념 모델 종류와 정의¹⁴⁾

	인간 한계 모델 (Human Limitation Model)	인간 다양성 모델 (Human Variation Model)
장애인의 문제 정의 (Problem/Issue Definition)	장애를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식하고, 존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각시킴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써 정의하고 부각시킴
장애인에 대한 평가 (Evaluation)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며 일반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함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평가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식은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고속성장에 집중해 있는 사이, 사회적 약자나 소

12) 권명옥, 같은 책, 131쪽.

13) 노수진, 「TV 휴먼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장애인의 이미지 분석 - 장애인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일반 다큐 프로그램 비교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 같은 논문, 18쪽.

수자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탓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장애인 시각은 미디어에서의 장애인 재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백선기는 미디어에서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재현 연구에서 ‘소수자는 양적인 소수자가 아닌 사회내의 권력의 우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능동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기보다는 객체화된 존재로,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타자’로 주변적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였다.¹⁵⁾

3. 다큐멘터리의 문화할인 효과

영상 텍스트의 의미구성은 문화권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과 그 문화권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상텍스트가 국가 간 교류될 때는 문화적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를 ‘문화할인(Cultural Discount)’라고 하는데, 이는 문화상품이 다른 문화권 사이에 유통될 때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을 일컫는다¹⁶⁾. 호스킨스(Hoskins)는 ‘영상 텍스트를 수용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질을 포함한 여러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영상텍스트의 문화할인에 있어서, 할인율이 높은 장르와 낮은 장르가 구별된다. 영화나 드라마는 문화할인율이 높은 장르로 분류된다.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삶의 양태를 토대로 극적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장르는 문화할인율이 낮은 장르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한 문화권의 역사적 문맥에서 벗어난 상상적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문화할인이 낮은 장르로 분류된다. 이는 다큐멘터리가 각 문화의 특성보다는 문화적 보편성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최옥은 다큐멘터리가 가진 자연과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덕분에 다른 콘텐츠보다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렇다고 다큐멘터

15)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16) 이상요, 앞의 논문, 20-23쪽.

17) 위의 논문, 23쪽.

리가 타 문화권으로 가면 문화할인이 높아진다는 영상텍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재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특정 문화권의 문맥과 강력하게 혹은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기 마련이다.

문화할인 효과를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다.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영상 콘텐츠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특히 다큐멘터리 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 서양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동서 문화권의 차이와 이해는 영상 콘텐츠의 문화 할인을 낮추는 필수적 과정이다.

우선 서양에서의 자아 인식과정을 살펴보면, 서양인은 개인주의적이며 독립적인 자아관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주변과 분리된 주체적 자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아인식 개념은 르네상스의 인간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르네상스 시대의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어낸 피치노(Ficino)¹⁹⁾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탄생시키며 인간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시각과 그리스 철학을 극적으로 화해시켰다고 평가 받는데, 인간을 ‘육체 속에 간혀 있지만 신의 지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정의했다.²⁰⁾ 서영식은 피치노의 철학을 인간의 능동성의 발견이라고 인식하면서, 피치노의 개념에 의해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 초월적인 세계로 영입할 수 있었던 중세의 인간관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에 비해 동양의 자아관념은 집단주의적이고 상호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뿌리는 고대 중국인의 사상에서

18) 최옥, 『방송 사업자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 방송 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 방안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0, 45쪽.

19)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끈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이자 철학자

20) 김상근,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21세기북스, 2010, 242-243쪽.

21) 서영식,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인간관과 세계이해』, 『철학논총』 74:4, 새한철학회, 2013, 349-351쪽.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황하 일대에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끝없는 재해를 이겨내야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우주의 중심을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는 곧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자연의 중심으로 설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경생활은 가족 중심으로 생산이 이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족인 환경에서 분리된 자아를 생각하기 어려웠다.²²⁾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양적 인간관이 형성되었는데,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동양의 상호의존적 자아 개념을 가진 인간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적이긴 하나, 사고 형태가 유추적이고 은유적이어서 애매한 점이 많다. 이에 반해 서양의 독립적 사고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집단을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²³⁾

Ⅲ.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달팽이의 별>은 축각을 이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영찬과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순호가 만들어 가는 ‘감성 멜로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유럽인을 위해 제작한 유럽 버전과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NHK 버전이 존재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각기 다른 버전의 작품이 어떠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연구문제 1]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의 두 가지 버전의 서사구조는 어

22) 이종목, 「산업심리학에서 본 동서양 문화의 심리·행동 특성과 그 전망적 해석」, 『호남문화연구』 3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4, 149-152쪽

23) 같은 논문.

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각기 다른 서사구조 내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관계, 중심 주제, 주요 가치관 및 정념 등이 무엇이며,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에 집중했다.

[연구문제 2] 두 가지 버전의 서사구조가 드러내고 있는 중심주제, 가치관, 인식 및 정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이들 다양한 요소들의 차이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 의미의 차이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동양과 서양에서 각기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연구문제 3] 두 가지 버전의 중심 요소들의 차이가 문화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1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이다. 두 가지 버전이며, 하나는 유럽을 타겟으로 한 ‘암스테르담 버전’이고, 동양권의 ‘NHK 버전’이다.

〈표 4〉 분석대상

	암스테르담 버전	NHK 버전
장르	HD다큐멘터리 장편	
감독	이승준	

촬영 포맷	16:9 Widescreen	
언어	한국어/ 영어자막	
상영일자	2011.11	2011.3
런닝타임	52분	87분
촬영기간	2년	2년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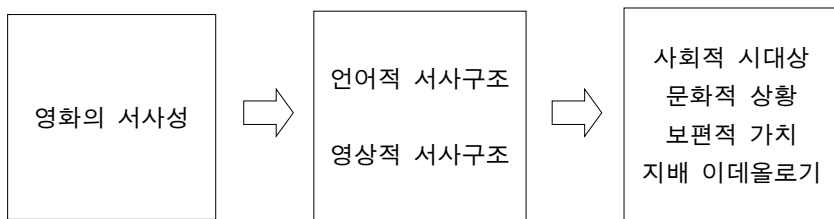
(1) 서사구조 분석

영상 콘텐츠는 여러가지 기호들의 복합체다. 다양한 기호들이 서로 경쟁하고, 결합하며 자신의 의미를 관철시킨다. 영상 속에서 기호들이 결합할 때에 의례 서사성이 부여된다. 서정남은 ‘서사란 허구 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다. 인류가 교류와 소통의 방식으로 구축한 모든 언어활동의 기저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²⁴⁾ 매체가 달라지고 장르가 변하여도,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사에는 일정한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이야기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들의 관계 안에서 협조, 갈등, 대립, 투쟁이 전개된다.²⁵⁾

영상텍스트에서 서사구조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건 프로프(Propp)의 민담형태론 연구에서 부터였다. 프로프에서 레비-스트로스(Levi-Straus)로 이어지는 서사구조에 대한 관심은 기호와 의미, 신화, 문화 등의 연계성에 주목한 20세기 구조주의 기호학을 풍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구조주의 인류학적 방법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이 영화였다. 영화는 영상, 나레이션, 음악 자막 등 다양한 언어 채널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서사구조를 표출할 때 ‘언어 서사구조’와 ‘영상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24) 서정남, 『영화 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25)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1쪽.



〈그림1〉 영화의 서사성과 사회적 맥락²⁶⁾

이처럼 다양한 기호 복합체인 영화 텍스트의 이야기 구조를 분절하여, 그것이 가진 의미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서사구조 분석이다. 이는 이전의 인상주의 비평 수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평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²⁷⁾

(2) 그레마스의 계열체 분석

서사구조 분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만들어낸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계열체 분석은 의미를 생성시키는 이항대립의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학자는 파리 기호학과를 정립시킨 그레마스(Greimas)다. 그레마스는 의미생성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모델을 제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²⁸⁾ 백선기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의미가 생성되고 조직화되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이론이면서 그 실천이기도 하다. 그레마스는 텍스트를 언술의 연쇄형태로 나타나는 담론의 집합이라 보고, 텍스트를 층위화 함으로써 의미 생성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²⁹⁾ 층위화된 텍

26)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 영화 2010 <하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 한국기호학회, 2010, 11쪽.

27) 백선기, 앞의 책, 1쪽.

28) 최송희, 「장르별 재현방식과 의미구성의 차이: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9) 백선기, 앞의 책, 10-11쪽.

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그레마스는 행위를 이항대립이라는 반대되는 두 사항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행위의 결합방식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효과가 결정지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 효과는 하나의 사항으로부터 또 다른 사항으로의 이동을 통하여 이뤄지는데, 그 이행은 대상의 분리와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고 여겼다. 가장 기본적인 서사구조는 주체(S)와 대상(O)이 분리되고 결합하는 구조인 것이다(김가연 2012). 그레마스와 폰타닐(Greimas & Fontanille)³⁰⁾은 ‘행위 기호학은 행위에 방점을 둔 이론으로서, 행위는 항상 변형행위를 말하며 이것은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 즉, 이접과 연접의 상태인 것이다.’³¹⁾

(S ∪ O) → (S ∩ O)

(S: 주체 O: 가치대상 U: 이접 U: 연접 → 변형행위)

이러한 의미생성의 기초단위가 되는 것이 의미소인데, 그레마스는 의미소의 창출은 기호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³²⁾ 이 의미소를 창출하는 과정을 그레마스는 행위주 모델로 설명하는데, 담론에 등장하는 행위주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연계시키면서, 담론이 지향하는 중심행위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모델이다.³³⁾ 행위주 모델의 기본 요소는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협조자와 반대자 세가지 대립 항으로 나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사의 진행을 도식화한 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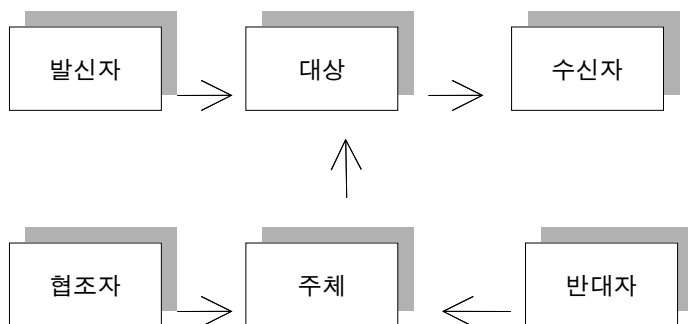
30) Pontanille의 이름을 국내에서 번역할 때 ‘폰타닐’이나 ‘폰타뉴’ 등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폰타닐’을 따르고자 한다. 홍정표(2014) 참고할 것.

31)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물질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역, 도서출판 강, 2014.

32) 김가연, 「휴먼다큐멘터리 이데올로기 신화 연구 : <인간극장>의 구조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3) 지남유, 「영화 <왕의 남자> 서사구조와 의미구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4) 임은주, 「그레마스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석 - 장편 애니메이션 “슈렉”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한국콘텐츠학회, 2009, 99-106쪽;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 영화 2010 <하녀> 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그림 2〉 그레마스 행위주 모델³⁵⁾

(3) 정념의 기호학 분석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성기호학’, ‘행동기호학’에 이어 주목 받는 기호학 흐름은 바로 ‘정념기호학’이다. 정념기호학이 주목받는 연구 대상은 주로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인데, 일반인들이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³⁶⁾ 한기창은 정념기호를 ‘인간의 모든 감성과 감정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정서, 감정, 애정 등에 대한 상위 개념인 정념에 의해 의미형성을 하는 기호’라고 정의했다.³⁷⁾

정념의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감성에 대한 서구 철학자들의 주장을 이해해야 하는데³⁸⁾, 감성은 그리스시대부터 로고스(logos)에 대립되는 파토스(pathos)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을 ‘욕망, 분노, 공포, 태연, 질투, 환희,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 한국기호학회, 2010, 135-172쪽.

35) 임은주, 앞의 논문, 101쪽.

36) 백선기, 앞의 논문.

37) 한기창, 「정념기호와 브랜드 기호의 통합작용에 의한 감성기호의 개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2쪽.

38) 정념에 대한 서구 철학자들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애정, 증오, 노여움,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전파되어 오다가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파스칼, 흄, 헤르더, 부르크하르트, 라신느, 흄즈, 알랭 등의 학자들을 거치면서 ‘정신과 육체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가 혼란스럽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지각의 일종’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홍정표, 2014, 41-46쪽 참조).

친애, 증오, 동경, 경쟁심, 연민 및 쾌락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모든 감성들은 비이성적인 것과 연계되어있는데, 이는 근대에 와서 육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의미화한다³⁹⁾.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정념의 기본적인 개념은 경이, 사랑, 증오, 욕망, 기쁨, 슬픔 등이다.⁴⁰⁾

이러한 정념의 개념을 기호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는 바로 그레마스다. 그레마스는 그이 제자 풍타닐과 1991년에 펴낸『정념의 기호학』에서 인간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 탐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정념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념이 생성되는 발생과정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접과 연접'의 접합관계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호서술체의 층위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정념기호학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층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실제차원, 인지차원, 기질차원으로 나뉘는데, 이접과 연접이 이뤄지는 층위는 실제차원이다. 이곳에서의 이접과 연접은 어떤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면 다른 주체는 대상을 잃는 이산이 나타나는 층위다. 인지차원은 의견이나 정보 교환으로 지식이 구성되고, 주체와 대상의 접합이 가능하게 된다. 기질차원에서는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주체와 대상의 접합이 일어나는 층위로 주체 사이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 층위 중 실제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접과 연접 속에서 정념의 의미⁴¹⁾들이 발현하게 된다.⁴²⁾

39) 정념의 개념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감성적 현상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정신기능과 욕망적인 육체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40) 백선기, 앞의 논문, 138-139쪽.

41) 본 논의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주체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대상과의 '연접과 이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념들과 그로 인한 정념들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계열관계가 아닌 이들 계열관계의 변화들을 통해 다양한 정념들이 생성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정념들의 다양한 현상과 기질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정념의 생성 과정' 자체에 주목했음을 밝히고자 함.

42) 백선기, 앞의 논문, 144-145쪽.



〈그림 3〉 이접과 연접으로 인한 정념의 생성 과정⁴³⁾

IV. 연구 결과

1. 서사구조 분석 결과

1) ‘암스테르담 버전’의 서사구조

(1) 단락별 언어 서사구조

암스테르담 버전은 남들과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시청각 장애인인 영찬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각의 부재를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재인식하는지를 관찰자적 시점에서 그리고 있다. 서사구조는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전개를 근간으로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단락마다 각기 다른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표 5〉 암스테르담 버전의 언어 서사구조

단락 1. 주인공 재현 (현상과 관계)	영화의 도입부이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삶을 시청자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라는 굴레에 얽매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동료들을 독려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단락 2. 새로운 감각 세계 의 경험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내와 떠난 부산 여행에서 더 많은 감각을 체험하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감각의 세상과 접하게 된다. 새로운 감각의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비장애인들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한다.
단락 3. 실패와 도전	다양한 도전을 감행하면서 고쳐하는 주인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나감으로써 삶의 의지를 북돋는다.

43) 같은 논문, 145쪽.

단락 4. 아내의 주체성 회복	장애를 갖고 있는 아내와 동료들이 어떻게 주인공 영찬과 협조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묘사된다.
단락 5. 현실 교감과 인식의 전환	장애를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재규명함으로써,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묘사하고 있다.

(2) 단락별 영상 서사구조

단락 1 주인공 재현



단락 2. 새로운 감각세계의 체험



단락 3. 실패와 도전



단락 4. 아내의 주체성 회복



단락 5. 현실 교감과 인식의 전환



〈그림 7〉〈달팽이의 별〉 암스테르담 버전 단락별 구조와 이미지

단락별 영상의 서사구조는 주인공을 둘러싼 사건의 추이를 계절의 변

화와 시간경과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과 마주한 주인공의 의식적 변화에 따라 단락을 나누었다. 따라서 다섯 단락은 ‘주인공 재현’ ‘새로운 감각 세계의 체험’ ‘실패와 도전’ ‘아내의 주체성 회복’ ‘현실 교감과 인식의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영상의 서사구조를 통해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2) ‘NHK 버전’의 서사구조

(1) 단락별 언어 서사구조

〈표 6〉 NHK 버전의 단락별 언어 서사구조

단락1. 주인공 재현	시청각 중복장애인인 영찬과 그의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는 척추장애인 순호씨의 일상을 묘사한다.
단락2. 고통의 시간	영찬과 순호에게 닥친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장애인이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 되기도 된다.
단락 3. 고통의 해소	고통이 해소되는 단락으로 다시 찾아온 행복 속에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단락 4. 새로운 도전 - 아내를 위한 홀로서기	영화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영찬이 홀로서기에 도전 하고 있다.
단락 5. 부부에 확인	부부간 사랑의 확인과정을 통하여 장애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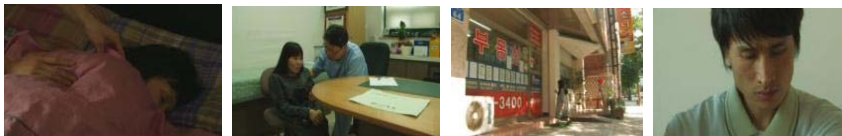
NHK 버전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인 영찬이 척추 장애인인 아내 순호의 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 단락별 영상 서사구조

1 주인공 재현



2. 고통의 시간



3. 고통의 해소



4. 새로운 도전



5. 부부에 확인



〈그림 8〉〈달팽이의 별〉NHK 버전 단락별 구조와 이미지

영상의 서사구조는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 재현’ ‘고통의 시간’ ‘고통의 해소’ ‘새로운 도전’ ‘부부에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통해, 장애인에게는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을 아내와 함께 헤쳐가면서 느끼는 기쁨을 그렸다.

이같은 서사구조 분석의 결과, 두 버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공통점은 ‘주인공 영찬을 둘러싼 사건의 추이에 따라 구성된 점’,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난극복의 스토리구조’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암스테르담 버전에서는 서사 전개 중심 주체가 주인공 영찬인데 비해, NHK버전에서는 영찬 단독이 아닌 아내 순호가 비중있게 등장하며 중심 주체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극복인 점이다. 주인공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 사항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암스테르담 버전에서의 주인공은 ‘내면의 인식전환을 통한 자아성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NHK 버전에서는 ‘아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정체성 확립’에 집중되어 있다. 서사전개에 있어서도 암스테르담 버전에서는 클로즈업 솟을 자주 사용했고 ‘시’를 통해 주인공 내면의 인식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 NHK 버전은 장애인으로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 버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감각을 일반인과는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NHK 버전에서는 장애인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부부애를 통한 고난극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7〉 두 버전의 서사구조와 중심 주제 비교

	암스테르담 버전	NHK 버전
서사구조의 공통점	주인공을 둘러싼 사건추이에 따라 구성	
	전형적 고난 극복 스토리텔링	
서사구조의 차이점	주인공 중심으로 서사 전개	아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 전개
	인식 전환을 통한 자아성취에 집중	타인과의 협력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집중
	은유적 표현을 통한 자기 인식	직접적인 현실 문제 극복
	상실한 감각에 서사성 부여	장애인 부부애에 서사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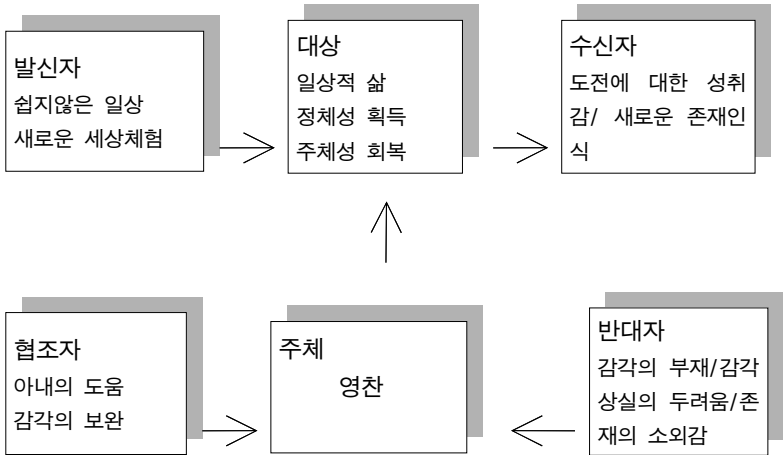
2. 행위주 분석 결과

두 가지 버전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다섯 단락의 중심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단락을 중심 주제, 목표, 인물관계, 도움과 반대 등을 근간으로 하여 그레마스의 ‘행위주 분석’을 시도하였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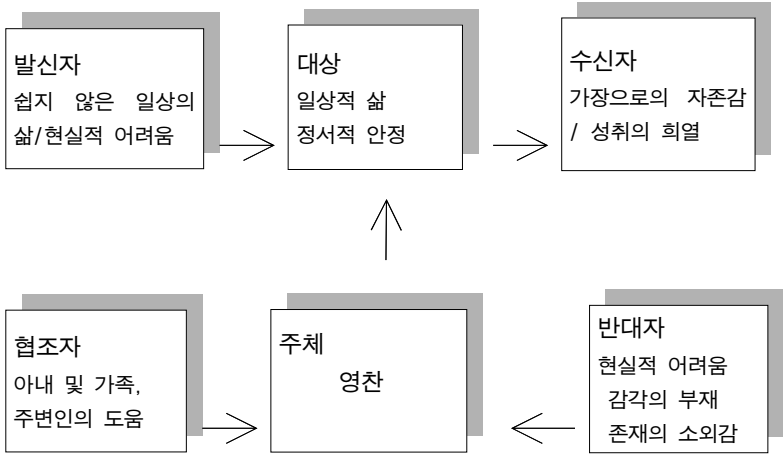
44) 두 버전의 다섯 단락에 따른 ‘행위주 분석’은 지면 관계로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했음. 각각의 단락에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 대해 표면적 행위주 분석과 내면적 행위주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한지원(2014)를 참조하기 바람.

각각의 단락별로 이루어진 행위주 분석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버전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9〉 〈〈암스테르담 버전〉〉의 통합 행위주 분석 결과



〈그림 10〉 〈〈NHK 버전〉〉의 통합 행위주 분석 결과



행위주 분석 결과, 암스테르담 버전은 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비장

애인의 일상적 삶에 대한 도전’과 ‘주체적인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움의 경우도 ‘아내의 협조’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등, ‘내재적인 원동력을 통해 현실 극복’이 드러났다. 반대의 경우는 ‘감각 부재를 통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내면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이 표출된다.

NHK 버전의 경우, ‘일상적인 삶에 대한 도전’은 암스테르담 버전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NHK 버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도움의 경우도 ‘아내’와 ‘가족’ 혹은 ‘사회복지사’ 등 주변 인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시되며, 주요 목표로는 ‘내재적인 정체성 확립’ 보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나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이 제시되며, 최종적으로 ‘감각의 회복’ 희망이 대두된다.

〈표 8〉 두 버전의 행위주 분석 비교 결과

	암스테르담 버전	NHK 버전
공통점	일상적 삶의 도전과 성취	
차이점	내재적인 자아와 대립	현실적인 어려움과의 대립
	주인공의 인식 변화	주변인의 적극적인 도움
	새로운 존재 인식을 통한 정체성 확립	가정이 주는 안정감 아내와의 정서적 합체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획득

3.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

두 가지 버전에서 나타나는 정념이 무엇인지 단락별로 파악하고, 그 정념이 나타나게 되는 변화 추이를 이접과 연접을 통해 밝혔다. 각 버전의 ‘실체차원’, ‘인지차원’, ‘기질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념들을 분류하였

고, 그것을 세 가지 층위, 즉 ‘정서적 층위’ ‘자아성찰 층위’ ‘관계 층위’에서 표출되는 정념을 파악하였다.

1) 두 버전의 단락별 주요 정념들

(1) 암스테르담 버전의 주요 정념들

암스테르담 버전에서 각각의 단락은 서로 다른 다양한 정념들을 지니고 있다. 프롤로그 단락은 길에 선 남녀가 연을 날리는 과정이 중심이다. 시각과 청각이 없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도움을 얻어 힘들게 연을 날린다. 이 단락에서 나타난 정념은 연날리기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어렵게 성취해 낸 ‘희열’이다. 1단락은 시청각이 부재한 존재로 주인공이 재현되는데, 한계적인 감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의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난다. 2단락에서는 다른 세계로의 도전이 주를 이루게되는데, 그곳에서의 새로운 환경과 감각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다. 새로운 경험은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데, 자신을 한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충만감’을 얻는다.

3단락에서는 현실적인 ‘위기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도전하면서 자신이 가진 한계와 맞닿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비통함’을 느끼지만,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성취의 ‘기쁨’으로 전환된다. 4단락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이은 공동체적 동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대상이 아내인데, 같은 장애인인 아내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함으로써 심리적인 ‘충만감’을 느낀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된 아내와 장애인 동료들로 인해 ‘만족감’을 느낀다. 5단락에서 나타난 주요 정념은 ‘해방감’이다. 주인공은 모래 위에서의 죽음의 체험과 물속에서의 탄생의 체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자신에게 부재한 감각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부재한 감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낀다.

(2) NHK 버전의 주요 정념들

NHK 버전 역시 다양한 정념들이 단락별로 제시되고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남녀가 연을 날리는 과정이 묘사됐다. 시청각이 없는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도움을 얻어 힘들게 연을 날아 올린다.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정념은 장애인이 연을 날리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한계적인 존재로 밖에 살 수 없는 ‘슬픔’이다. 1단락 역시 시청각이 부재한 존재로 주인공이 재현되는데, 제한된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의 역할을 해 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더불어 결혼을 통해 ‘행복감’과 ‘기쁨’을 느낀다. 2 단락의 주요 정념은 ‘연민’ ‘동정’ ‘절망’이다. 아내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연민’, 주거 상실로 인한 ‘동정’, 주거상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인한 ‘절망’이다.

3단락은 2단락에서 나타난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집안 식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결혼을 통해 예전에 가졌던 ‘고립감’을 해소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4단락에서는 주인공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장애인으로 묘사되는데, 우선 아내를 쉬게 하겠다는 욕망을 발현하여 홀로 보행 연습을 시도한다.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5단락은 다큐멘터리의 마무리로 보행 연습으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부부가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표 9〉 두 버전의 주요 정념들 차이

분류	암스테르담	NHK
<u>프롤로그</u>	희열	슬픔
1단락	어려움, 만족감, 외로움, 기쁨	어려움, 만족감, 기대감, 기쁨
2단락	두려움, 고립감, 충만함	연민, 동정, 좌절,
3단락	기쁨, 즐거움, 좌절, 불안, 비통함	기쁨, 외로움, 고립감, 안정감
4단락	욕망, 만족감, 연민, 충만함	욕망, 만족감, 좌절, 불안
5단락	고립감, 해방감	안도감, 만족감, 성취욕, 기쁨

2. 이접과 연접을 통한 새로운 정념의 생성⁴⁵⁾

정념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 가지 차원은 ‘실체차원’ ‘인지차원’ ‘기질차원’인데, 실체차원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접과 연접을 통해 접합이 이뤄지는 차원이고, 인지차원은 의견이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주체와 대상간의 접합이 작용하는 차원이며, 기질차원은 기분이나 감정의 공유를 통해 생성되는 차원이다.⁴⁶⁾

암스테르담 버전에서는 실체차원에서 ‘고립감’, ‘외로운’, ‘두려움’, ‘불안감’, ‘비통함’, ‘연민’, ‘고립감’의 정념이 나타나지만, 현실과정을 극복하는 인지차원에서 ‘기쁨’, ‘만족감’, ‘해방감’, ‘충만감’의 정념이 나타난다. 최종적인 기질차원에서는 ‘기쁨’과 ‘만족감’이 드러난다.

45) 본 논의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중심 인물이 획득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의 성취 여부에 따른 다양한 정념들의 생성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그레마스의 이접과 연접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따라서 정념 자체의 다양한 층위와 기질 또는 다른 정념들과의 비교는 시도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함.

46) 백선기, 앞의 논문.

〈표 10〉 암스테르담 버전의 차원별 정념들

실제 차원	인지 차원	기질 차원
(S1∪O1) -> 고립감	S1∩O2) -> 기쁨, 만족감	S1∩S2) -> 기쁨, 만족감
(S1∪O3) -> 외로움	S1∩O4) -> 해방감	
(S1∪O5) -> 두려움, 고립감	S1∩O6) -> 충만함	
(S1∪O7) -> 불안	S1∩O8) -> 기쁨	
(S1∪O9) -> 비통함	S1∩O10) -> 기쁨	
(S1∪O11) -> 연민	S1∩O12) -> 만족감	S1∩S2∩S3 -> 만족감
(S1∪O13) -> 고립감	S1∩O14) -> 해방감	

S1 : 영찬 S2: 순호 S3: 장애인 친구들

O1 : 연날리기 시도 O2: 연날리기 성공 O3: 전구갈기의 도전 O4: 새로운 감각의 발견

O5: 장애인으로의 소외 O6: 결혼을 통한 기쁨 O7: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 O8: 초월적 존재 인식 O9: 감각 둔화에 대한 두려움 O10: 홀로서기 성공 O11: 아내의 외로움 O12: 연극을 통한 자아실현 O13: 죽음체험 O14: 부재한 감각의 재해석

NHK 버전 역시 다양한 정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암스테르담 버전의 정념들만큼 다양하지 않다. 실제차원에서는 ‘괴로움’, ‘두려움’, ‘연민’, ‘좌절’이 나타난다. 그리고 인지차원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취감’,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최종적인 기질차원에서는 ‘기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표 11〉 NHK 버전의 차원별 정념들

실제 차원	인지 차원	기질 차원
[(S1∪O1) -> 괴로움]	(S1∩O2) -> 성취감	(S1∩O3) -> 기쁨
(S1∪O4) -> 연민과 동정, 좌절	(S1∩O5) -> 기쁨	(S1∩O6) -> 안정감
(S1∪O7) -> 두려움과 좌절	(S1∩O6) -> 만족감	(S1∩S2∩O9) -> 기쁨

S1 : 영찬 S2: 순호

O1 : 장애인 일상 O2: 한계에 대한 도전 O3: 가장의 책임 O4: 아내의 질병, 주거 상실, 경제적 무능 O5: 가족의 도움 O6: 결혼 생활 O7: 보행 연습 O8: 도전의 성공 O9: 재회

3. 두 버전 정념들의 차이

두 버전에서 등장하는 정념들은 유사한 것 같지만 중심 정념들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이 등장하는 정념으로는 ‘좌절’과 ‘연민’의 정념이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념들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암스테르담의 경우 내재적 자아의 변화가 정념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이며, 다른 감각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자아인식을 통해 희열과 해방감을 맛보며, 그것을 아내 및 동료 장애인들과 나눔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반해, NHK 버전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자아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정념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인이란 존재가 가진 외로움과 고립감, 현실적 무능함에서 오는 자괴감이 크게 부각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아내를 위해 성취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희열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요컨

대, 암스테르담 버전의 주요 정념은 ‘부재한 감각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해방감’이고, NHK 버전의 주요 정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안정감’이다.

〈표 12〉 두 버전 정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암스테르담 버전	NHK 버전
공통점	감각 상실에서 오는 고립감 장애인의 외로움 현실적 극복을 통한 희열	
차이점	낮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감각둔화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존재인식을 통한 해방감 아내의 위로를 통한 충만함 도전 성취로 인한 희열 감각의 재해석으로 인한 해방감	현실적 어려움에서 오는 불안감 경제적 무능력함에서 오는 자괴감 정서적 안정을 통한 안도감 자아실현을 통한 희열 가장으로의 만족감 타인을 통한 정서적 안도감

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두 버전이 서로 다른 서사구조는 물론이고 중심 주제와 주요 정념들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암스테르담 버전은 자신을 다른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갖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초월적 자기 인식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심 주제다. 이에 반해, NHK 버전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며 아내의 적극적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중심 주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첫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시각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 있는 ‘문화활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장애인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를 지닌 존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20세기부터 서양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정상화 운동, 미국에서는 메인 스트림 운동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다양한 인류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다. 암스테르담 버전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NHK 버전은 장애인의 현실 극복의 과정에 주목하며, 부부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반영이나 보편적 인류애적 시각은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서사구조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사구조의 전개는 물론이지만 누구를 주체로 서사를 전개하는가가 주요 관심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동서양의 자기인식 과정의 차이에 기인한다. 유럽에서는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에 비해, 동양인은 구체적 맥락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암스테르담 버전의 서사구조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문제에 집중한다. 스스로 자신을 우주인이라 규정하고, 그래서 삶이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신감을 찾는 과정이다. 이에 반해, NHK 버전에서는 장애인 주인공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서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주인공의 모든 행위는 아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개되며, 자기 정체성 역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가간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상호 의존성이 짙은 동양적 자기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표 13〉 두 버전에 표출된 다층적 의미구조

〈달팽이의 별〉의 현실재현	
〈암스텔담 버전〉	〈NHK 버전〉
다른 감각을 가진 존재 감각으로부터의 자유 갈망 감각 둔화의 두려움 인식전화를 통한 자존감 획득 초월적인 존재 인식 아내의 주체성 회복 독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회복 자신이 가진 감각에 대한 재해석	감각 부재의 존재 아내를 통한 감각의 보완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 가장의 자존감 회복 가정이 주는 정서적 안정 장애인으로 느끼는 외로움 부부애를 통해 극복한 장애인의 삶
<div>   </div>	
표출단계의 의미	
다양성 모델의 장애인 인식	한계적 모델의 장애인 인식
동정 시선의 탈피	동정 시선
인류 보편성 부각	현실적 어려움 부각
<div>   </div>	
자아 중심의 독자적 주체성 인식 분리적 세계관	상호의존적 주체성 인식 종합적 세계관
심층단계의 의미	

결론적으로, 두 가지 버전의 <달팽이의 별>이 유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을 반영하면서 전개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버전은 <표 13>과 같이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요컨대,

서로 다른 다층적 의미구조는 같은 주제의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서사 구조’, ‘중심주제’, ‘주체와 객체’, ‘인물과의 관계’, ‘목표지향성’, ‘자아 인식’, ‘자기실현’, ‘사회적 가치’, ‘문화적 관습과 경향’, ‘정념’ 등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옥, 「장애인관 발달사 일 고찰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3, 한국특수교육학회, 2000, 107-136쪽.
- 권진희,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국제 공동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그레이엄 엘런,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송은영 역, 앨피, 2006.
- 김가연, 「휴먼다큐멘터리 이데올로기 신화 연구 : <인간극장>의 구조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귀곤, 「브랜드 확장평가의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리적 기저에 관한 연구 - 제품범주정보의 간섭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연식·구종상, 「TV 다큐멘터리 수출 활성화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6:4, 한국방송학회, 2002, 113-139쪽.
- 김우철, 「한국독립다큐멘터리에 내포된 제작자의 권력과 양식변화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혜숙 외,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한국심리학회, 2003, 121-143쪽.
- 남인영,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배급과 해외 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 『영상산업정책연구』 09:5, 영화진흥위원회, 2010.
- 노수진, 「TV 휴먼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장애인의 이미지 분석 - 장애인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일반 다큐 프로그램 비교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김영사, 2004.
- 박영원, 「롤랑 바르트의 이론과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광고의 의미작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3, 한국콘텐츠학회, 2008, 97-106쪽.
-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 영화 2010 <하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 한국기호학회, 2010, 135-172쪽.
- _____,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의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_____,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_____,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b.
- 베네딕테 잉스타, 수잔 레이놀즈 휘테,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그린비, 2011.

- 서덕진, 「시적 다큐멘터리 영화의 몽타주해체와 분석에 관한 연구: 요리스 이벤스의 <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영식,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인간관과 세계이해」, 『철학논총』 74:4, 새한철학회, 2013, 345-365쪽.
- 서정남, 『영화 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 성동규 · 노창희, 「국내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도출에 관한 연구: 플랫폼 별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3, 한국지역언론학회, 2008, 271-313쪽.
- 세일러 커런 버나드,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양기석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신지아, 「<달팽이의 별> 이승준 감독 빗방울 느끼는 두 사람,,,예뻐 보였다」, 노컷뉴스, 2013.12.9.
-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물질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유기환 · 최용호 · 신지아 역, 도서출판 강, 2014.
- 양정혜·노수진,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3, 한국방송학회, 2012, 371-415.
- 영화진흥위원회, 『글로벌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가이드라인』, 2010.
- _____, 『한국 영화 출품 및 수상현황 - 다큐부문』, KoBIZ, 2014.
- 오세철, 「동구제국의 민족주의, 인텔리겐차, 그리고 민족 문화」, 『현상과 인식』 11: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7, 9-26.
- 윤기호, 『동영상 이야기 : TV 제작 입문』, 나남, 2011.
- 이상요, 「한국 TV 다큐멘터리 세계화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승준, 「이승준 감독이 직접 쓴 <달팽이의 별> 제작노트」, 맥스무비, 2012. 03.16.
- 이종목, 「산업심리학에서 본 동서양 문화의 심리.행동 특성과 그 전망적 해석」, 『호남문화연구』 3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4, 139-173쪽.
- 이종수,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 전략: ‘아마존의 눈물(MBC)’과 ‘아마존(BBC2)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4:3, 한국언론학회, 2010, 374-398쪽.
- 임은주, 「그레마스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석 - 장편 애니메이션 “슈렉”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한국콘텐츠학회, 2009, 99-106쪽.
- 전평국, 『영상다큐멘터리론』, 나남, 1993.
- 지남유, 「영화 <왕의 남자> 서사구조와 의미구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차민철, 『다큐멘터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주 일, 「ACT! 83호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실태보고」, 참세상, 2013.04.15.
- 최 욱, 『방송 사업자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 방송 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 방안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0.
- 최민재, 「영상텍스트 의미구성과 수용자 해독에 관한 연구 : 영화 [친구]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최선영, 「시각화와 청각화가 구현하는 시적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배리어프리 버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2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157-193쪽.
- 최송희, 「장르별 재현방식과 의미구성의 차이: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기창, 「정념기호와 브랜드 기호의 통합작용에 의한 감성기호의 개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미정, 「초고령사회 일본의 TV방송 콘텐츠 및 시청자 분석을 통한 고령 시청자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1, 문화방송, 2013, 155-186쪽.
- 현우진, 「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환경 동향」, 『2010년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공학회, 2010, 324-325쪽.
- 현우진,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전략: 다큐멘터리의 유럽진출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공학회, 2013, 359-362쪽.
- 홍정표, 『정념 기호학: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HUEBOOKS, 2014.

Hall, Stuart,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1982, pp.111-41.

Narrative and Meaning Structure of the Documentary for Handicapped Humans: A Semiotic Study on two versions of a Human Documentary, <Planet of Snail>

Han, Ji-Won · Baek, Seon-Gi

This study focused on the documentary, <Planet of Snail> that won the best documentary award from the Amsterdam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on 2011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movie history. The movie told a story about an ordinary life of one handicapped couple, Husband was deaf and blind and his spouse was troubled with spine disability. The movie was funded from international media organizations and made with producers from different countries. This was speculated to reduce 'cultural discount effects', and thus two different versions of documentaries were created — the one for Amsterdam's Film Festival to take European consumers and the other for Japanese, which was produced with NHK.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two versions in respects of narrative and meaning structures even though they both were based on same topic and content. In order to indicate how cultural differences affect narrative and meaning structures, the two versions were analyzed by several semiotic research methods such as Syntagmatic Analysis, Paradigmatic Analysis,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especially Emotional Semiotic Analysis of Greimas & Montaigne's. As results of this study, it proved tha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two versions in respects of narrative structure, main themes, subjects and objects, relations with others, self-cognition, self-actualization, challenge and recovery, emotions, etc. Such differences would be resulted from different cultural values and recognitions.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ne version represented

for westerner culture tending to emphasize more on individual's independence, while the other based on Asian culture focusing more on human-relationships. As a conclusion, it confirmed that each of versions reflexed its own cultural values and cognitions which could be explained by the interesting concept, 'Cultural discount'.

Key Words : Planet of Snail, Handicapped Human Documentary, Narrative Structure, Semiotic Analysis, Emotional Semiotic, Multipul Meanings

투고일 : 2014.11.15 / 심사일 : 2014.12.01 / 심사완료일 : 2014.12.08